

트럼프의 관세 치킨 게임, 중국에도 통할까

경제포커스



나지홍
경제부장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으로 유명해진 치킨 게임은 경제학에서 두 경쟁자가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주 쓰인다. 영화에선 사랑하는 여성을 두고 제임스 딘과 연적(戀敵)인 남성이 자동차를 두고 해안가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상황으로 설정됐지만, 원래는 서로 마주 보고 차를 몰다가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패자는 겁쟁이(chicken)가 된다. 만약 양측 모두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난다.

초부터 게임 자체가 성립하기 힘든 조건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2018년 통신 장비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다. 이후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기술 자립에 나섰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중국이 발표한 쌍순환 전략이 대표적이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국내 대순환 강화'와 한국·일본·아세안을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

미국·무역 의존도 높을수록
관세 폭탄에 맞설 협상력 약화
미국·내수 강화한 중국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

협정(RCEP) 등으로 미국 대신 아시아·유럽·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국제 대순환 조정'이 핵심이다. 또 제조업을 고도화해 첨단 산업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중국 제조 2025' 정책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저비용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맞먹는 성능의 AI를 구축한 '딥스프 쇼크'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06년 64.5%까지 상승했던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2023년 37.3%로 떨어졌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가량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한국(88%), 독일(83%), 프랑스(71%), 일본(45%)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낮다. 관세전쟁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다. 많은 통상 전문가가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미국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실제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맞불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도 역사적으로 미국에 불리하다. 관세전쟁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 행진했던 주식시장 거품이 빠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년마다의 회 선거를 치르는 미국 정치인들에겐 큰 부담이다. 반면 중국 물가가 오르면 공산당 지배 체제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가 관세 치킨 게임에서 상대가 먼저 피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상식과 핵전쟁'이란 책에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을 치킨 게임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무책임한 소년들이 치킨 게임을 하면 자신들의 목숨만 위험에 처한다. 하지만 저명한 정치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억 명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린다."

관세 폭탄을 무기로 무역 파트너들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잘 먹혔다. 미국과 충돌하기엔 캐나다와 멕시코가 약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에서 대외 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국내총생산)의 25%에 불과하지만 멕시코는 73%, 캐나다는 67%에 달한다. 게다가 멕시코 수출의 80%, 캐나다 수출의 78%가 미국으로 간다. 반면 미국 수입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 수준으로 낮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없이 살기 힘들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애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94] 이순간은 평생 기억날 거야

A moment we'll always remember

"영원은 지금의 집합체.(Forever is composed of nows)."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690번 시에 있는 구절이다. 사람은 영원을 꿈꾸지만 영원은 유한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이며, 닿으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을 사는 우리는 조금씩 영원을 완성하고 있다. 영화 '히어(Here·2025·사진)'는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한 장소의 역사를 보여주며 이곳,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리처드 영(폴 헨크스 분)은 부모 알영(폴 베테리 분)과 로즈 영(켈리 라일리 분)이 결혼하며 택한 집에서 태어나 자신도 아내와 그 집에 터를 잡는다. 화가가 꿈이었던 리처드는 아이가

태어나자 생명보험 판매원이 된다. 리처드는 남편의 취업이 마냥 기쁜 마거릿의 호들갑에도 푸념 섞인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응, 일생일대의 기회지(Yeah, it's the opportunity of a lifetime)." 마거릿은 길었던 남편의 갈등을 눈치채지 못했다. "당신은 안 좋아?(Aren't you happy?)"

어느 날 딸 바네사가 학교에서 상으로 받은 과란 리본을 잃어버려 슬퍼한다. 우여곡절 끝에 소파 틈에서 리본을 발견한 세 가족은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 순간은 평생 기억날 거야(A moment we'll always remember)." 리처드가 거실에서 책을 펼치고 아이에게 읽어준 책의 한 구절. "얼마나 멀리 가든, 우리가 뭘 보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있고 원하는 곳이야(No matter how far you travel, no matter what we see, right here is where we want to be)."

리처드의 평생이 이 집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노인이 되어 남은 두 사람. 치매가 있는 마거릿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과란 리본을 찾던 그 순간이다. 평생이 녹아 있는 이곳에서 손을 꼭 잡는 마거릿과 리처드. 영화 번역가



리 가든, 우리가 뭘 보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있고 원하는 곳이야(No matter how far you travel, no matter what we see, right here is where we want to be)."

리처드의 평생이 이 집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노인이 되어 남은 두 사람. 치매가 있는 마거릿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과란 리본을 찾던 그 순간이다. 평생이 녹아 있는 이곳에서 손을 꼭 잡는 마거릿과 리처드. 영화 번역가

社 說

현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거리 정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까지 8.7km를 걸어가며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시위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인간 띠 잇기'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했고,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사람도 있다. 민주노총까지 1박 2일 밤샘 집회에 나선 11일 밤 광화문 광장은 수십 개의 텐트와 침낭으로 덮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장의 투쟁을 하거나 단식 같은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시간 현재 앞을 지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로 한 국회 의원만 60명이다.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거리에 나가 있는데, 지도부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머지않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가 두 쪽 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민의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격한 감정이 그대로 거리에서

분출되면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는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현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것은 나라가 아닌 자신들 패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한국 정치의 저질 수준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현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인근 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반경 10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 물품이 있는 주유소나 공사장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종로구도 현재 인근 상가에 입간판 등을 치우라는 권고를 했고, 현재 인근의 초·중·고교들도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다. 걱정되는 한편으로 혀를 차게 된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러시아제 관공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한다는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등의 인터넷 글들도 돌아다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래선 안 된다. 여야는 거리에서 물러나 현재의 어떤 판결이든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R&D 주 52시간 예외' 조선·배터리도 절박하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막자, 정부가 공여지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손질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여건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는 반도체만이 아니다. 최 대행이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과거 중국 조선 업체들이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 선박을 집중 수출했지만, 최근엔 달라진 기술 역량을 토대로 컨테이너선, 가스 운반선까지 대거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 분야 R&D 인력은 1만8000명으로, 1300명에 불과한 한국의 14배에 달한다. 중국의 기술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조선 업체는 첨단 선박 기술 R&D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

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정치권에 계속 요청해 왔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국 조선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R&D 인프라가 중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호기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2차 전기 업계도 중국에 기술 우위를 잃어가는 위기감 속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계속 요청해왔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 CATL에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선 8·9·6 근무제(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2차 전기 연구 인력이 중국 CATL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 어떻게 기술 경쟁에서 이기겠나.

한동안 한국이 압도했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혔다. 이제 반도체, 조선, 2차 전지까지 중국에 털미를 잡히려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노조 편만 들고 있다. 노동부 지침 개정을 통한 특별 연장 근로 확대라도 반도체 외에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면 설명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당 인사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이후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당시 분배보다는 성장,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우겠다며 사실상 '우클릭' 방침을 밝힌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이 대표는 추경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고, 반도체특별법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와 좌파 단체들이 비난하자 이 대표의 '우클릭'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퇴를 검토한다고 했던 기본사회

위원장도 다시 맡기로 했다.

상습적 유훈과 급변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이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봤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쪽만 보는 것이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바로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제는 최소 200조원의 돈이 드는 문제다. 이 대표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볼 때마다 200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것이 벌일 아니라고 한다.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 대표는 그 폭이 너무 크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라는 것도 대부분 이 대표가 강조했던 친기업과는 동떨어진 반시장 친노조 정책들이다. 지역 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조 편향적인 노란봉투법, 그리고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들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포퓰리즘이다.

이 대표가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만능 그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은 해야 한다.

싸움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

권영세·권성동 교체하라 ... 입으로만 싸우는 척, 뒤편 개헌 공공이

머리 속 온통 권력·지위 유지 욕심뿐
내각제 개헌해서 (부족장) 하겠다는 것
강골들로 국민의힘 지도부 다시 짜야



▲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데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 권영세와 권성동. 국회 독재 견제 투쟁은 안 하고 국회가 통째로 권력을 갖는 의원내각제 개헌 아래 권력 나눠먹을 공리만 하고 있다. 그게 그들 속마음일 것이다. © 이종현 기자

이젠 탄핵소추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세력은 더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점의 과제는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각하(卸下))다.

나이가 (윤 대통령 팀)과 (대한민국 진영)은 (싸움은 이제부터)란 각오를 투철하게 다져야 할 때다. 자유인들이 맞서 싸우는 (주적(主敵) NL 운동권)들은 자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반대(opposition))가 아닌 까닭이다.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존중하는 진보 세력)이 아니다. 저들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체주의 일당 독재 세력)이다.

저들은 한국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선 폭력혁명이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걸로는 (세계 안의 합법적 반대)처럼 위장한다. 실재로는 (세계 전복)을 꾀하면서.

지금 국회 가지곤 싸움 이길 수 없다

이런 교활한 (집단)과 맞붙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팀 + 자유/민주/공화 시민)이 갑당할 역사적 책무다. 이걸 저 알량한 국민의힘이 해주길 바

랄 수 있겠나? 없다! 그렇다면? 새 (자유우파 주류)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 (주적(主敵)) 외에 또 하나의 골리앗이 있다.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우리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파-언론)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 호시탐탐 (자기 한국을 거머쥐려)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비(非)좌파)라 하지만 (탄핵 세력)이고 (기회주의자)들이다.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을 연거푸 몰아냈다. 이 (원죄)에 매여, 그들은 (정통 자유 투쟁 세력)을 (극우)라 헐뜯으며 (적대)한다.

투사형 지도부로 국회 새만 구축

이 (좌익 + 기회주의자)들과 싸워 이기려면, 정통 자유 진영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 + 윤석열 대통령 인맥 + 3.1절 국민저항운동)의 공동투쟁을 꾸려야 한다.

이를 위해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은 물러서야 한다. 그 대신 (체대로 싸우는 국민의힘)이 들어서야 한다. (강한 국민의힘 + 강한 윤 대통령 팀 + 3.1절 국민저항운동)이 (강한 자유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김문수·나경원·윤상현·김민진·강선영·장동혁·주진우·박수영·박대출·강승규·조배숙, 팽리 (윤 대통령의 새 주류) 짜라! 현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의원직 총사퇴론은 좋다!

윤 대통령도 앞으로 확실한 인사(人事)로 강한 팀을 짜야 한다. 그동안 배신자들 속출하는 것, 옥중에서도 보고 느꼈을 것이다.

한동훈과 그 일행들, 안철수, 오세훈, 유정복, 김태훈, 김영환, 그리고 최상목, 이주호는?

자유/민주/공화 시민들, 2030/대학생들, 그들이 있기에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삭발식, 전국 대학생 국회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우리 승리 하리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3월 10일 게재되었습니다.

